

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청년농 소통협의체 간담회 개최

윤 차진형기자 | 승인 2026.04.02 17:50 | 11면

청년농 의견수렴·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는 2일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 /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

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(지사장 손홍모)는 2일,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청년농업인, 김해시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장(신연철) 및 농지은행관리부장(강호희) 등 담당직원 등 총 14명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,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. 또한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.

청년농업인들은 직접 이용하고 있는 농지은행 사업(공공임대 농지매입, 선임대후매도,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등)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하였으며, 특히 선임대후매도사업 지원조건 중 거치기간 연장(2년→5년)과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.

손홍모 지사장은 "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

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”라며 “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”라고 말했다. 차진형기자

저작권자 ©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차진형기자